

이슈분석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본 장애인 고용실태 및 근로조건

황수경*

I. 들어가는 말

- 장애인의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은 일반인들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어떠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없이 동등한 사회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공존상태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취업
 - 취업은 경제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비장애인과의 사회적·심리적 격차를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1990년대 이후 장애인 복지정책은 소득보조 중심에서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을 우선하는 것으로 방향 선회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하게 노동시장에서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장애인 정책의 출발점이자 궁극적 목표
- 장애인 고용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고용현황, 고용여건, 취업애로요인 등 전반적인 고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이 글에서는 국내 유일의 장애인 관련 전문통계조사인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사용해 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근로조건을 실태를 종합하고 주요 특징을 분석
 - 이를 통해 사회통합정책에 부합하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장애인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skhwang@kli.re.kr).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의 개요

-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 관련 전문통계조사로서는 유일한 자료
 - －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
 -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구와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5년 주기로 「장애인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제28조, 시행령 제14~15조)
-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1999년 장애범주를 신체장애 중심의 5개에서 내부기관 장애를 포함한 8개로 확대한 이후 처음 조사된 것으로,
 - －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200개 지역에서 총 44,000개 가구를 층화추출하여 표본조사하고, 이와 함께 875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
 - －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장애인구는 145만명으로 추산되어 장애인출현율(=인구 100명당 장애인구 비율)은 3.09%
-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장애인구 중 15세 이상 인구 133만3천명을 대표하는 표본 3,96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II. 장애인의 취업 현황 및 특징

◆ 실업의 정의와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자)는 45만5천명으로 취업인구비율은 34.2%(남자 43.4%, 여자 19.4%)
 - － 우리나라 전체 취업인구비율 58.5%(2000년 기준)에 비해 장애인의 취업인구비율은 크게 낮은 수준

- 실업자는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자인데,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사를 통상의 방식대로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1)을 한 적이 있는가’ 하는 적극적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실업자는 4만 9천명(실업률 9.8%)
 - 2000년 전체 실업률 4.1%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여 장애인의 고용여건이 매우 열악함을 입증
 - 그러나 미취업자 중 취업희망자(22만 6천명)는 15세 이상 인구의 17.0%를 차지하여 실업자수(3.7%)에 비해 현저하게 많음. 이는 장애인의 취업여건이 열악하여 잠재적 실업자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실업의 원인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업의 정의가 필요
-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유를 살펴보면, 노동시장 여건이 장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하여 구직활동을 포기한 경우가 상당수 존재(표 1)

<표 1> 취업희망자 중 비구직 이유

분 류	(%)	구체적 사유	(천명)	(%)
차별적 요인	5.3	회사에서 장애인을 안 받아줘서	9.5	5.3
이동권·접근성 제약	0.9	작업환경(편의시설 등)이 열악해서	0.5	0.3
		출퇴근이 힘들어서	1.1	0.6
지원 부족	20.7	임금이 너무 낮아서	1.2	0.7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26.4	14.7
		취업정보, 취업방법을 몰라서	4.4	2.4
		일에 필요한 기술(능)이 없어서	5.2	2.9
장애요인	48.0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86.1	48.0
개인적 사유	22.7	다른 질병 때문에	4.7	2.6
		나이가 많아서	14.7	8.2
		가사·육아문제 때문에	5.2	2.9
		굳이 취업할 필요가 없어서	3.1	1.7
		취업 이외의 준비 때문에(진학·결혼 등)	0.9	0.5
		재학 중이기 때문에	12.2	6.8
기타	2.4	기타 사유	4.2	2.4
전 체	100.0	전 체	179.4	100.0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1) 통계청에서는 지난 1주간 구직활동 경험 유무를 기준으로 실업률을 산정함.

○ 취업을 희망하지만 본인의 사유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다양한 노동시장 여건에 의해 구직활동을 포기한 자(실망실업자)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실업률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 기준 1: 통상의 기준
- 기준 2: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이동권·접근성 제약으로 인한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업자는 6만 1천명(실업률 11.7%)
- 기준 3: 정책적 지원에 의해 노동시장에 끌어들이 수 있는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업자는 9만 8천명(실업률 17.7%)
- 기준 4: 장애인의 특수상황으로서 장애로 인해 구직을 포기한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업자는 18만 4천명(실업률 28.8%)

<표 2>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장애인 ¹⁾				전체 ²⁾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경제활동참가율	37.9%	38.7%	41.5%	47.9%	61.0%
실업률	9.8%	11.7%	17.7%	28.8%	4.1%

자료 : 1) 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

<표 3>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구분

	전체	성 별		장애유형별				
		남성	여성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정신장애	내부기관장애
장애인수(천명)	1332.7	819.9	512.8	801.1	175.3	167.3	121.5	67.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성비]		[61.5]	[38.5]	[60.1]	[13.2]	[12.6]	[9.1]	[5.1]
취업자	34.2	43.4	19.4	34.2	45.5	40.5	16.3	20.3
실업자(기준 1)	3.7	4.7	2.1	4.2	4.6	2.6	1.4	3.0
실망실업자(기준 2)	0.8	1.1	0.5	1.0	0.6	0.9	0.4	0.0
실망실업자(기준 3)	2.8	3.1	2.3	2.7	2.9	1.7	4.5	3.3
실망실업자(기준 4)	6.5	7.3	5.2	7.4	3.1	3.0	10.0	6.8
비경제활동인구	52.1	40.5	70.5	50.5	43.3	51.3	67.5	66.7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 고용정책의 궁극적 목표이나, 기준2 또는 기준3에 의한 실업자를 우선정책대상으로 간주하고 점차적으로 정책대상을 기준4에 의한 실업자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임.
 - 통상의 기준에 의한 실업자는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의 경우가 가장 많음.
 - 기준2에 의한 실망실업자 비율은 지체장애나 청각·언어장애의 경우 높게 나타남. 이들의 경우 차별 금지, 이동권 보장 등 사회적 환경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음.
 - 기준3에 의한 실망실업자 비율은 2.8%나 되고 정신장애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이들에 대해서도 적합직종 개발, 취업서비스 개선 등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가 요구됨.

Ⅲ. 취업장애인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 취업장애인의 직업 및 종사상 지위

- 취업장애인의 대다수가 서비스·판매직(20.9%), 농어업직(25.6%), 단순노무직(23.4%) 등 단순비경력직에 종사하고 있음. 여성의 경우 이러한 편중현상이 보다 심각하며 장애유형별로 직업 분포에 뚜렷한 차이를 보임.

<표 4> 취업장애인의 직업 분포

(단위: %)

	전체	성 별		장애유형				
		남성	여성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	내부기관
고위관리직	0.3	0.4	0.0	0.5	0.0	0.0	0.0	0.0
전문직	2.4	2.6	1.9	2.5	2.6	1.7	0.0	6.1
준전문직	3.6	3.4	4.2	3.6	6.5	1.3	0.0	3.4
사무직	4.8	5.2	3.3	5.6	4.3	2.1	0.0	12.8
서비스·판매직	20.9	19.4	26.6	19.1	37.3	12.9	5.8	23.2
농어업직	25.6	24.8	28.5	24.1	17.3	39.2	37.3	19.5
기능직	11.7	13.3	6.1	13.2	10.2	11.8	3.5	1.4
기계조작·조립직	6.5	8.1	0.6	8.8	3.2	2.9	2.3	2.8
단순노무직	23.4	22.3	27.5	21.7	17.9	27.8	48.9	30.8
분류불능	0.8	0.6	1.3	0.8	0.8	0.3	2.3	0.0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 취업장애인의 53.2%가 비임금근로자이고 나머지 46.8%가 임금근로자임. 상용직 근로자는 취업장애인의 25.9%에 불과하고 임시·일용직이 20.9%로 절반 수준에 달함.
 - － 상용근로자 비중은 여성(13.4%)과 시각장애인(18.9%)의 경우 특히 낮음.
 - － 임시·일용직은 여성(27.3%)과 내부기관장애(35.1%) 및 정신장애(30.4%)의 경우 높게 나타남.

<표 5> 취업장애인의 취업유형(종사상지위) 분포

(단위: %)

	전체	성 별		장애유형별				
		남성	여성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	내부기관
비임금근로자	53.2	51.5	59.4	51.1	62.3	56.2	44.1	41.7
자영업자	40.4	42.6	32.6	39.8	51.9	39.9	12.7	28.6
고용주	3.4	4.3	0.0	4.3	2.7	2.2	0.0	0.0
무급가족종사자	9.4	4.6	26.8	7.0	7.7	14.1	31.5	13.1
임금근로자	46.8	48.5	40.6	48.9	37.7	43.8	55.9	58.3
상용(전일제)	24.6	28.2	11.6	27.9	18.3	20.9	21.9	17.1
상용(시간제)	1.3	1.2	1.8	1.2	0.6	0.7	3.5	6.2
임시	5.4	5.2	6.1	6.5	2.8	1.0	9.0	14.7
일용	15.5	14.0	21.2	13.3	16.0	21.2	21.4	20.4

주: 모든 구성비는 취업자 대비 수치임.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 취업장애인의 소득과 근로시간

- 취업장애인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5.7시간이고 월평균 수입은 84만원
 - － 임금근로자의 경우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1.2시간, 월평균 임금은 85.9만원으로 비임금근로자(주당 평균근로시간 59.8시간, 월평균 수입은 82.6만원)에 비해 다소 양호한 여건임.
 - － 여성(47.4만원)의 월평균 수입은 남성(92.4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
 - －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인(39.2만원)의 월평균 수입이 유난히 낮고 이를 제외하면 평균 70~90만원선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 및 근로시간

	전체	성 별		장애유형별				
		남성	여성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	내부기관
주당 평균근로시간	55.7	55.9	54.8	55.3	61.2	52.8	51.4	49.4
월평균 소득(만원)	84.0	92.4	47.4	89.7	83.8	70.2	39.2	82.6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 장애인 임금근로자에 한정해 임금 및 근로시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 장애인 근로자의 현 직장 취업기간은 평균 6.7년인데, 성별로는 남성, 장애유형별로는 내부기관장애, 직장유형별로는 자영업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당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여성이 45.5시간, 남성이 52.5시간으로 여성의 근로시간이 비교적 짧으나 여전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수준임.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 및 내부기관장애, 직장유형으로는 직업재활시설 및 정부부문에서 근로시간이 비교적 짧음.
 -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여성근로자의 월평균 임금(46.0만원)은 남성(95.2만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근로시간이 다소 짧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여성장애인의 임금수준은 지나치게 낮음.

<표 7> 장애인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

		취업기간(년)	주당근로시간(시간)	월평균 임금(만원)
임금근로자		6.7	51.2	85.9
성 별	남성	7.2	52.5	95.2
	여성	4.9	45.5	46.0
장애유형	지체장애	6.8	52.2	91.0
	시각장애	7.1	52.0	96.1
	청각·언어장애	5.5	50.0	68.7
	정신장애	5.4	43.9	36.7
	내부기관장애	10.6	44.6	86.9
직장유형	자영업	12.7	54.2	55.1
	일반사업체	6.3	53.2	90.7
	정부 및 관련기관	7.3	46.9	92.3
	직업재활시설*	2.3	41.3	19.7
	장애인 관련기관	1.3	57.2	63.3
	기타	6.0	35.4	62.7

주 : *는 직업재활시설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남성이고 정신장애자임.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 장애인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일반사업체나 정부부문에 취업한 경우 90만원 정도로 가장 높은 반면, 자영업체 근로자는 최저임금 수준인 55만원에 불과하고 더욱이 직업재활시설 취업자는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직장유형별 격차가 매우 큼.
- 직장생활에서 취업장애인이 느끼는 애로사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낮은 수입(47.7%)이고, 다음으로 업무과다(12.5%), 차별대우(2.9%)의 순임.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도 24.2%에 이룸.
 - 임금근로자에 비해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낮은 수입으로 인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큼.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직장내 대인관계, 직무관련 기능 부족,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등과 같은 업무내용과 관련된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여성은 낮은 수입, 업무과다, 출퇴근 불편 등 업무량이나 업무접근성과 관련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표 8> 취업장애인의 직장생활 애로사항

(단위: %)

	전체	성 별		장애유형					취업유형	
		남성	여성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	내부기관	임금	비임금
낮은 수입	47.7	47.3	49.1	48.3	46.3	51.1	35.2	44.9	41.0	53.5
직장내 대인관계	1.5	1.8	0.5	1.3	0.5	2.0	3.7	6.8	2.7	0.3
승진문제	0.8	0.8	0.6	0.9	0.6	0.8	0.0	0.0	1.6	0.0
업무과다	12.5	12.2	13.8	12.1	11.9	15.0	6.6	20.5	13.3	12.0
직무관련기능 부족	2.5	2.8	1.6	2.5	2.5	3.4	2.2	0.0	3.1	2.1
적성과 맞지 않는 업무	2.3	2.7	0.9	2.5	2.4	1.2	4.9	0.0	2.0	2.6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	2.9	3.1	2.3	2.0	3.1	3.7	15.1	0.0	4.1	1.9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0.5	0.6	0.4	0.7	0.8	0.0	0.0	0.0	1.1	0.1
출퇴근 불편	2.1	1.9	2.6	2.1	3.6	1.0	0.0	0.0	3.0	1.3
어려움 없음	24.2	24.0	24.6	24.5	24.7	20.5	29.9	24.9	26.1	22.4
기타	3.0	2.9	3.5	3.3	3.7	1.4	2.4	3.0	2.0	4.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IV.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

◆ 장애인이 희망하는 근무형태

- 장애인은 통상 취업활동에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을 갖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무형태에 민감할 수 있음. <표 9>는 향후 (계속) 취업희망자의 근무형태를 살펴본 것임.
 - 장애인의 대다수가 전일제(86.7%)나 일반적인 출근근무(76.5%)를 희망하지만 시간제(13.3%)나 재택근무(19.0%)와 같이 유연한 근무형태를 선호하는 비중도 적지 않음.
 - 유연한 근무형태에 대한 수요는 여성일수록, 그리고 장애유형별로는 이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높게 나타남. 내부기관 장애는 지속적인 업무수행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간제근무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음. 유연한 근무형태의 도입은 이들 장애인에게 우선적인 이점을 제공할 것임.

<표 9> 장애인이 희망하는 근무형태

(단위 : %)

	전체	성 별		장애유형별				
		남성	여성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	내부기관
전일제	86.7	89.0	77.6	87.3	88.8	82.6	89.1	76.2
시간제	13.3	11.0	22.5	12.7	11.2	17.4	10.9	23.8
재택근무	19.0	16.1	30.3	15.4	37.9	12.3	16.4	13.2
출근근무	76.5	79.2	65.9	79.2	59.9	83.3	78.1	85.0
출근근무(보호고용)	0.2	0.2	0.0	0.1	0.0	0.0	2.8	0.0
출근근무(지원고용)	0.9	1.0	0.3	0.9	0.7	1.2	0.0	1.8
재택+출근	3.4	3.4	3.6	4.3	1.5	3.2	2.7	0.0
재택+지원·보호	0.1	0.1	0.0	0.1	0.0	0.0	0.0	0.0

주 : 앞으로 (계속)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응답함.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실태

-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한 광의의 경제활동인구 중 장애를 입은 후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5.5%에 불과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의 맹점을 보여줌.
 - 통상의 실업자(10.6%)와 기준 3에 의한 실망실업자(14.4%) 가운데 직업훈련 경험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정보가 부족하거나 필요를 못느껴서가 주종을 이루는데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은 취업장애인에 비해 훈련정보 부족으로 인한 미경험자가 10~20%포인트 정도 많음.
 - 통상의 실업자의 경우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 직업훈련과 취업과의 연계가 강화되지 않으면 구직을 포기하고 실망실업자화할 가능성이 상존함.

<표 10> 장애인 범주별 직업훈련 실태

(단위 : %)

	전체	취업자	실업자 (기준 1)	실망실업 (기준 2)	실망실업 (기준 3)	실망실업 (기준 4)
직업훈련 경험자 비중	5.5	4.8	10.6	6.0	14.4	2.7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직업훈련이 있는지 몰라서	29.8	27.3	34.9	37.3	49.2	31.6
등록절차를 몰라서	4.4	3.7	6.3	14.0	3.5	5.7
심한 장애로 훈련받기 어려워서	11.4	6.5	4.8	8.9	8.8	41.0
직업훈련 비용이 부담되어서	1.0	0.8	3.1	0.0	1.4	0.9
직업훈련 내용이 마음에 안들어서	1.1	1.0	3.9	6.9	0.0	0.3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안돼서	6.2	6.0	14.9	8.7	8.4	1.7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서	43.7	53.1	26.1	17.5	23.1	16.3
기타	2.4	1.7	6.0	6.8	5.5	2.6

주 : 장애인 범주는 <표 3>의 구분에 따름.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 장애인이 희망하는 직업재활관련 정부의 역할

- 장애인이 직업재활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사항으로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은 취업 정보 제공(23.1%)이고, 다음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18.3%), 의무고용제 준수 유도(17.8%), 임금보조(13.4%) 등의 순임.

<표 11> 장애인 범주별 정부의 기대역할

(단위: %)

	전 체	취업자	실업자 (기준 1)	실망실업 (기준 2)	실망실업 (기준 3)	실망실업 (기준 4)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18.3	18.9	16.8	20.9	10.0	19.3
임금보조	13.4	12.6	14.6	18.0	19.6	13.9
취업정보 제공	23.1	22.7	19.8	17.1	29.4	25.1
직장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8.1	7.3	16.1	8.2	9.6	7.4
직업능력 개발(직업적응 훈련)	1.2	1.4	0.0	4.0	0.5	0.7
의무고용제 준수 유도	17.8	19.4	13.7	9.4	17.0	13.6
취업상담, 평가, 알선	4.8	5.0	2.9	7.9	5.7	3.9
기타	12.8	12.3	15.1	14.6	8.1	15.6
사후지도	0.5	0.5	0.9	0.0	0.0	0.5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 실업자는 취업자에 비해 직장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임금보조 등을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 광의의 실업자 가운데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구직을 포기한 기준2에 의한 실망실업자 그룹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직장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더 필요로 하고 있는 반면, 기준3에 의한 실망실업자 그룹은 취업정보 제공, 의무고용제 준수 유도 등 취업문턱을 낮추는 노력을 보다 중시하고 있음.

V. 장애인 고용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 장애인 고용정책의 기본전제는 장애인/비장애인간 고용기회의 형평성을 추구하되 장애인의 안전한 근로환경과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
 - 이러한 전제하에 장애인 고용정책의 방향은 ① 고용환경 조성 및 고용기회 확대, ② 보호장비 및 시설, 지원서비스 확충, ③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 ④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병행해 나가야 함.
- 직업능력이 있는 경증장애인을 타깃으로는 고용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강구하고, 직업능력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을 타깃으로는 고용능력(Employability) 향상 지원 및 고용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 고용정책의 대상은 경증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으로, 실업자에서 잠재적 실업자

로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함.

-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 장애인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로서 고용정책에 국한하여 보면 정보가 한정되어 있고 표본이 적어 대표성에 한계가 있음. 장애인 고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장애인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기초자료 구축이 시급함.